LGU+, 전문가와 떠나는 골프 캠프 참가자 모집

고덕호·김영 프로 등 5인과 필드 레슨

LG유플러스는 오는 25일까지 골프 미디어 플랫폼인 U+골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골프 전문가 5인의 필드 교습을 받을 수 있는 '판타스틱5와 함께하는 1박2일 레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레슨은 9월 6~7일 양일간 진행된다.

'판타스틱5와 함께하는 1박2일 레슨'은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세계 50대 골프 교습가 고덕호 프로 ▲한·미·일 3국 투어 챔피언 김영 프로 ▲W-Gtour 스크린골프의 여왕 최예지 프로 ▲골프 심리학계 1인자 백종원 박사 ▲인기 골프 유튜버 심짱 등 5명의 골프 히어로들이 U+골프 이용자 20명과 함께 레슨 캠프를 떠나는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이다.

'판타스틱5와 함께하는 1박2일 레슨' 참가자 모집 포스터. /LG유플러스

첫째 날은 참가자 전원이 드라이버샷, 아이언샷, 벙커샷, 퍼팅, 클럽별 거리찾기 등 5가지 테마에 대해 필드레슨을 받는다. 골프 전문가 5인은 각 한 테마씩 담당하고, 참가자 20인과 1:1 집중 레슨을 진행한다. 둘째 날은 참가자 4인과 멘토 1인이 1팀이 돼 동반 라운딩을 진행, MVP에게는 LG전자 V50 씽큐 스마트폰이 주어진다.

행사는 9월 6일과 7일 양일간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메이플비치 골프 앤 리조트에서 진행되며 36홀 라운딩, 숙박, 식사 등 전 일정 무료로 지원된다.

LG유플러스는 U+골프 앱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이달 2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통신사에 관계없이 U+골프 앱 이용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이 선발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여기어때-롯데백화점 국내여행 활성화 이벤트 연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이 롯데백화점과 함께 올 여름 국내 여행 고객을 위한 행사에 나선다. 롯데백화점 앱 로그인 고객을 대상으로 1만원 할인 쿠폰을 선물하는 이벤트다.

백화점의 쇼핑 정보를 받아보는 마케팅 수신에 동의하면 여기어때 쿠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쿠폰은 여기어때 앱에 등록해 우리나라 숙박시설과 액티비티를 예약하는 데 사용 가능하다. 쿠폰 다운로드 이벤트는 이달 9일까지, 사용 가능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또한 북캉스를 준비하는 사용자를 위해 교보문고와 손을 잡았다. 교보문고 온라인몰에서 도서를 구매한 고객은 여기어때 쿠폰 5000원권을 함께 수령한다. 쿠폰은 숙박, 액티비티 상품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

여기어때의 전국 호텔과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5만개 숙박 상품과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파, 축제와 공연, 키즈카페, VR 체험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예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벤트 쿠폰의 등록 및 사용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현명한 反日감정

기자 수첩

김 유 진 〈파이낸스&마켓부〉

8월 둘째 주를 시작하며 체감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영향은 막강했다. 이날은 지난 2일 금요일,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결의한 뒤 다시 시작한 한 주다.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했다. 미·중 무역분쟁 고조에 이어 일본의 2차 경제보복까지 이어지자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코스피는 2년 9개월 만의 장중 저점을 찍었고 코스닥은 6%대까지 급락하면서 금융위기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향후 5분간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사이드카 발동)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코스닥에서 지수 급락에 따른 사이드카 발동은 약 3년 1개월만이다.

애국주는 이미 지난주부터 상승세다. 국민들이 주로 이용했던 일본 제품들의 국내 경쟁업체에 관심이 쏠아졌다. 이와 궤를 같이하는 일제 불매운동은 제2의 독립운동으로 퍼지고 있는 양상이다.

나라경제가 이 같은 위기에 몰리자 오히려 더 침착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한다는 이야기는 한낱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과도한 민족주의가 비합리적인 칼날을 세워서는 안된다. 이미 구입한 일본 제품을 마저 사용하고 있는데 욕을 한다거나, 일본산 차에는 기름을 넣어주지 않는다는 식의 대응은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경제력, 인구수 등에 많이 뒤쳐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성난 민심이 모여 일본의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간 일제가 주류였던 제품들의 국내산 대체품목을 찾는 분위기 또한 성난 민심에서 비롯돼 잠깐 주식시장에서만 뜨는게 아니라 국산품 산업 활성화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인식이 여론으로 잠깐 들끓는 냄비로 전락해 우리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기를 기대해 본다.

/ujin6326@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8월 6일 (음 7월 6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현상 유지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 48년생 자식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 60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은 당분간 보류. 72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옷차림에도 신경. 84년생 외출할 때 이륜차를 조심.

소 37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49년생 사소한 인연도 소중히. 61년생 욕심이 지나쳐 남들이 불편해 한다. 73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하는 하루. 85년생 이해관계로 가족과 다툼이 있다.

호랑이 38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50년생 가장 큰 미덕은 혀를 구속할 줄 알아야 한다. 62년생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하루. 74년생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과감한 결단이 필요. 86년생 주변에 자랑할 일이 있다.

토끼 39년생 찬바람이 옷깃에 스며들기 전에 겨울을 준비. 51년생 망해 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63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가는 일을 그르친다. 7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흔들린다. 87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

용 40년생 주변이 어수선하니 말조심. 52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은 없는지 생각. 64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난감. 76년생 앞에 나서게 되나 타인의 질투를 받는다. 88년생 좋은 인연으로 큰 물질적 이득.

뱀 41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53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라. 65년생 원칙을 지키고 행동을 조심. 77년생 골치 아팠던 일이 잘 해결된다. 89년생 자신만 아는 정보를 함부로 발설하지 마라.

말 42년생 위기를 겪으며 확실한 내 편을 알게 된다. 54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니 보람이 있다. 66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 78년생 한발 물러서도 그다지 손해는 아니다. 90년생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답답.

양 43년생 노란색이 오늘 행운을 가져온다. 55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67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도 들어온다. 79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황이 시작. 91년생 조만간 능력을 인정받고 축하 받을 운.

원숭이 44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해결될 일. 56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 68년생 마른 논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풀린다. 80년생 명상을 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자. 92년생 뜻밖의 선물이 들어온다.

닭 45년생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고 일은 순서대로. 57년생 새로운 인연으로 중요한 정보를 얻는다. 69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 81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먼저 손질. 93년생 상사의 뜻에 이견제시를 하지 마라.

개 46년생 처음도 중요하나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 58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이든 시작. 70년생 병이 오나 약도 주어지니 다행. 82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오늘은 벅찬 하루. 94년생 기대를 많이 한 일에 실망이 크다.

돼지 47년생 좋다고 금방 달려들지 마라. 59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살 수 있다. 71년생 아랫사람과의 불화가 의심되니 주의. 83년생 파란 하늘이 보고 싶은 날인데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니 우울. 95년생 말조심 할 때.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6	7			
4	3			8			1	7
		7				9		
			7		5			
		1	2		8	3		
	4						2	
	7	5		2		1	4	
		6				8		
3			9	7	1			5

		1				2	6	
8					6			4
2				7				
	8		9		4			
	3	5				4	1	
			6		3		8	
				9				2
4			2					7
	2	3				1		

스도쿠 정답

5	6	2	1	7	9	4	8	3
9	7	8	4	5	3	6	2	1
3	4	1	6	2	8	5	7	9
1	2	7	9	3	6	8	4	5
6	5	3	8	4	2	1	9	7
8	9	9	2	1	7	3	6	2
4	1	6	5	8	2	7	3	9
7	3	2	1	9	5	4	1	6
2	8	4	7	6	1	9	5	3

3	7	1	5	4	9	2	6	8
8	5	9	1	2	6	3	7	4
2	6	4	3	7	8	5	9	1
1	8	6	9	5	4	7	2	3
9	3	5	7	8	2	4	1	6
7	4	2	6	1	3	9	8	5
6	1	7	4	9	5	8	3	2
4	9	8	2	3	1	6	5	7
5	2	3	8	6	7	1	4	9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연안대비와 원진살

살아가는 목표를 행복이라고 꼽는 사람이 꽤 많다. 일상을 만족하게 살고 좋은 운수가 들어오는 것이니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기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팔자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생활의 어느 부분에서 필요한분야가 있으니 찾아온다. 그 스토리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큰 줄기를 차지하는 것의 하나가 인간관계이다.조화로운 관계도 있지만 부조화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더 많다. 서로의 사주가 부조화 하는 사람과는 어떤 일을 해도 충돌이 생긴다. 서로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르는 말로 연안대비(燕雁代飛)가 있다. 연은 제비를 뜻하는데 12지의 자(子)에 해당한다. 안은 기러기를 말하는 것으로 12지에서 미(未)에 해당한다. 연안대비는 제비가 날아올 때가 되면 기러기는 떠난다는 자연적인 현상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 즉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사이가 좋을 이유가 없이 서먹서먹한 관계를 말한다. 12지를 기반으로 풀어보면 자미해(子未害), 서로가 해를 끼치는 것이니 함께 지내면 안 되는 관계이다. 이런 관계는 바로 원진으로 연결된다. 원진살은 신살 중의 하나로 흉신이고 부정 재앙 이별 같은 것들을 관장한다. 원진살은 부부사이에 서로 미워하는 액운이기도 하고 남녀의 궁합에서는 서로 꺼리는 살이며 음식에서는 먹고 탈이 나게 마련이다. 사주 구성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원진살 그리고 연안대비의 사이라면 그 사람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불편한 인간관계는 행복을 깨뜨리는 주요한 원인이다. 주변에 서로 원진살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무언가를 하려 말아야 한다. 차라리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게 행복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5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61호